

국내여행 계획 트렌드

- ▶ '17년 7월 25일(화) 배포
- ▶ 자료 총 3매

기 관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
책 임	김형곤 소장/Ph.D/대학원 교수
문 의	김민화 연구원/Ph.D
이 메 일	kimmh@consumerinsight.kr
연 락 처	02) 6004-7643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컨슈머인사이트 공동기획>

국내 여름휴가 여행 지출, 10% 이상 감소할 것

- 숙박여행의 기간·비용 모두 감소 예상
- 단기간·근거리 중심으로 여행계획 세워
- 제주·강원 감소하고, 경상권·전라권 증가

금년 여름휴가 여행계획의 ‘여행 기간’, ‘예상 비용’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3~14%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 기간이나 비용을 줄이겠다는 생각은 여행지 선택에도 영향을 줘 장거리-고비용 지역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기 여행지인 ▲제주도와 강원도의 선호도가 뚜렷하게 줄은 반면, 지역내 여행자가 많은 ▲경상권과 전라권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이는 숙박여행의 감소와 당일여행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5년 8월부터 매주 실시해 온 국내여행 계획을 묻는 조사('17 7월 3주차 현재 총 100차 진행. 누적표본 39,800명)의 지난 5분기(15개월; '16년 4월~'17년 6월) 동안의 결과를 정리했다<표1>.

3개월 내 계획하고 있는 1박 이상 국내여행의 ▲횟수·기간·예상비용의 평균이 지난 5분기 동안 보인 경향은 ▲2016년 2/4분기 이후 2017년 1/4분기까지 계속 감소하여 최저점에 이른 후, ▲2017년 2/4분기에는 다소 회복하거나 반등했다. 최근 2/4분기가 전 분기('17년 1/4분기)에 비해 계획 여행횟수와 여행기간이 증가(각각 평균 0.13회, 0.15박)한 것은, 5월 초 이례적으로 길었던 징검다리 연휴와 여름휴가 계획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년 동분기('16년 2/4분기)와 비교하면 계획하고 있는 여행의 기간과 비용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즉 전분기('17년 1/4분기) 보다는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이나,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14% 가량 감소했다. 숙박 국내여행이 단기간, 저비용 트렌드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사 시점					전년대비
	'16년 2/4분기	'16년 3/4분기	'16년 4/4분기	'17년 1/4분기	'17년 2/4분기	
예상 여행횟수 (1인당, 회) ^a	1.08	1.11	0.99	1.00	1.13	+4%
계획 여행기간 (박) ^b	2.56	2.42	2.43	2.08	2.23	-13%
예상 여행비용(1인당, 만원) ^b	27.3	27.0	25.8	23.4	23.6	-14%
주 관심 여행	'16년 여름휴가	'16년 가을/추석	'17년 겨울/신년	'17년 5월연휴	'17년 여름휴가	17년 vs. 16년 여름휴가

Q. 앞으로 3개월 간 1박 이상의 국내여행은 몇 번쯤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단, 시기나 지역이 정해진 것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Q. 계획하고 계신 'OOO' 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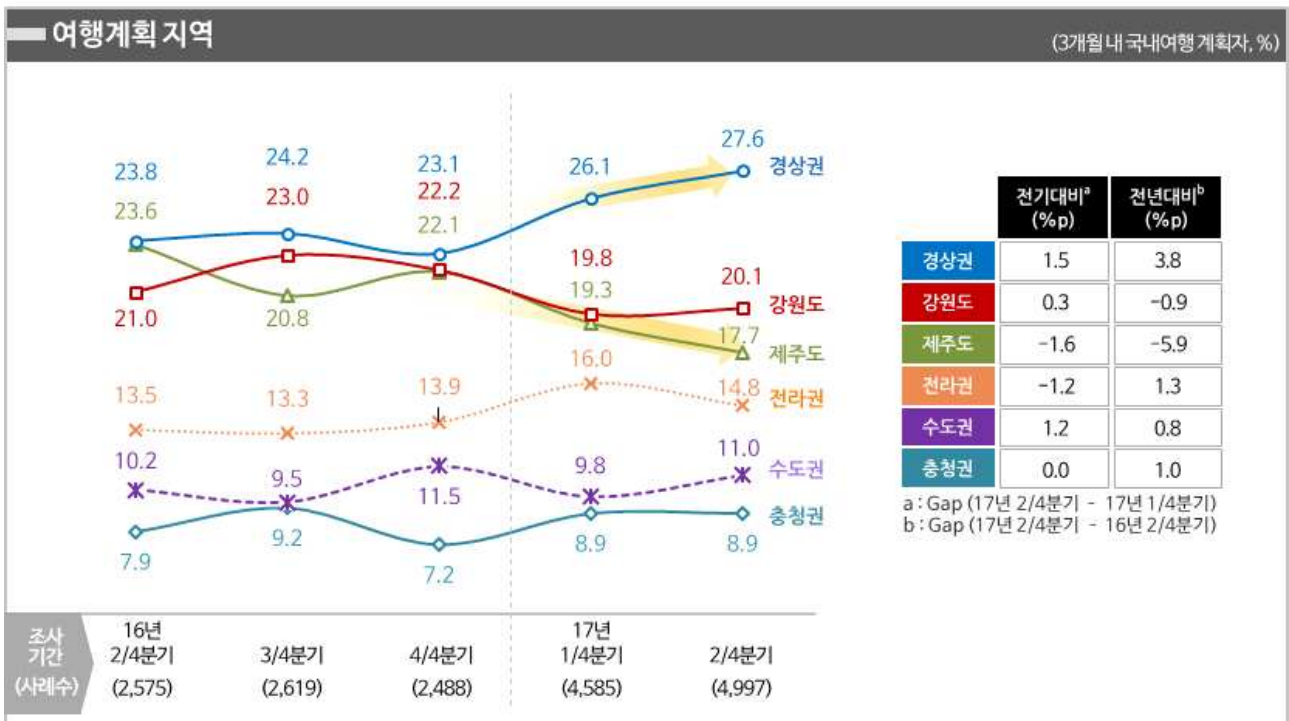
Q. 'OOO' 여행을 위해 1인 기준으로 총 얼마를 지출할 계획이십니까? 숙박, 교통, 쇼핑, 식음료 등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 총 비용을 적어주십시오.

a. 전체 응답자 (16년 2/4분기~4/4분기, 각 3900명, 17년 1/4분기~2/4분기 각 6500명)

b. 전체 응답자 중 3개월 내 국내여행 계획자 (16년 2/4분기~4/4분기, 각 2500명 내외, 17년 1/4분기~2/4분기 각 4500명 내외)

<표1> 3개월 내 숙박 국내여행 계획 횟수-기간-비용

여행계획 기간과 비용의 축소는 행선지 선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전국을 경상권·강원도·제주도·전라도·수도권·충청권 등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행지인 ▲제주도와 강원도의 감소가 크다. 특히, 제주도는 전년동기 대비 무려 5.9%p 줄었다. 반면 권역내 여행이 많은 ▲경상권은 전년동기 대비 3.8%p 늘었고, 전라권·수도권·충청권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먼 유명 여행지 보다는 인근 지역에서 짧게 여행을 즐기면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Q.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국내여행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그림1] 국내여행 계획 지역('16년 2/4분기~'17년 2/4분기)

올 여름휴가에는 작년 대비 10% 이상 적은 비용만을 지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여행 경기의 위축이 예상된다. 장거리-고비용 대신 근거리-단기간-저비용을 선택해, 유명 인기 여행지와 숙박업의 타격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동시에 근거리-당일 여행의 증가, 볼거리 보다는 놀거리-먹거리 중심의 여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불경기일수록 이런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는 매주 여행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주례 조사를 2015년 8월 24일에 시작해, 지난 연말 까지 71차(총 표본 수 21,300명) 실시해 왔습니다. 2017년 부터는 이를 매주 500명으로 늘리고, 조사내용도 여행 행동 부문으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consumerinsight.kr/travel 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 ·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의
보도자료는 인터넷(www.consumerinsight.kr/travel)에 수록되어있습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김민화 연구원(컨슈머인사이트 책임연구원)/Ph.D

kimmh@consumerinsight.kr 02)6004-7643

정경식 컨슈머인사이트 선임연구원/Ph.D

jungks@consumerinsight.kr 02)6004-7627

문지효 컨슈머인사이트 선임연구원/Ph.D

moonjh@consumerinsight.kr 02)6004-7631